

대학등록금, 매년 올라야 하는 것인가?

길용수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업전략팀장

I. 머리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진학률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 비해 대학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로 2007년 영국의 ‘더 타임즈’가 발표한 세계대학 200위 권에 2개 대학만이 포함되었을 뿐이다. 세계대학 순위에서 하나의 시사점을 찾는다면, 대학순위는 학교의 기금규모 순위와 유사하다는 점이다. 즉, 교육투자규모가 대학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대학이 세계 선두권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의 개선, 우수교원의 확보,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교육 서비스 등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재원 확보가 급선무이다.

최근 대학들이 교육재원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한 상태로 교육재원은 주로 학생 등록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등록금 의존에 따른 등록금 인상은 학교와 학생 간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갈등의 골만 깊게 하고 있다. 즉 학교는 등록금 인상으로 대학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학생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최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와 학생은 매년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지루한 협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워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다.

이번 논의는 대학구성원들이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 발전전략을 함께 수립하고 실천하는 동반자의 관

점에서 접근하였고 학교와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대학 발전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교육재원 마련방안의 하나로 등록금 인상요인과 완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학교와 학생 간의 대학재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립대학 재정 현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요인과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II. 대학등록금 의의 및 변화추세

1. 등록금의 의의

등록금이란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 납부하는 금전적 대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적정 등록금을 산출하고자 할 경우, 대학교육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등록금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의 본질은 생산비용, 합의비용, 부가가치비용 등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생산비용으로 보는 경우 등록금이란 교육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 재정적 자원, 물질적 자원, 인적 자원 등의 비용을 합한 것이다. 이 개념에 따라 투입된 비용을 산출하면 적정 등록금을 계산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대학은 매우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투입된 비용을 산출할 때 그 교육원가의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기

란 매우 어렵다.

합의비용으로 보는 경우 등록금이란 대학교육에 대한 공급자인 학교와 수요자인 학생이 일정한 교육활동을 매개로 서로 합의하는 금액이다. 즉 학생이 대학으로부터 공급받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할 의무가 있는 비용이 등록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시장은 국가가 대학정원을 통제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조절기능에 의해 등록금이 결정되지는 않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비용으로 보는 경우는 등록금의 본질을 인적 자산의 입장에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대학교육을 받으면 인적 자원의 가치가 증가하고 이 가치의 증가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소득 증가에 상응하는 비용을 등록금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2. 등록금 결정의 기본원칙

등록금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견해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등록금 결정을 위해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철저한 교육비 분석, 납부자 수혜원칙, 정보공개 원칙, 등록금 차등화이다. 학교와 학생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해 대학의 교육비원가를 철저히 계산하고, 납부 당사자에게 큰 손해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등록금 책정과정은 이해당사자 간에 협의과정으로 대학 재정에 관한 충분한 자료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등록금이 대학발전을 위한 주요한 재원이고 학교와 학생 간의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 대학등록금제도의 변화 양상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자율화의 일환으로 1988년 이후 단계적으로 등록금 자율화를 추진하였고 1992년 이후에는 사립대학에 대하여 완전한 등록금 자율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 이후 대학등록금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변화해 왔다. ① 학교 소재지에 따른 등록금 인상률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고, ② 전공계열 간 등록금 차등화가 진행되었으며, ③ 국·공립학교와 사립대학 간의 등록금 격차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지역 간 등록금 차이를 분석해 보면 수도권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7.2%로 지역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6.0~6.3%에 비해 높은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거듭된 인상률의 차이로 수도권 대학의 등록금이 727만 원인데 비해 지방권 대학은 662만 원으로 절대금액의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전공계열 간 등록금 차등화를 살펴보면, 대학 등록금은 최근 전공계열에 따라 인상률이나 절대금액 측면에서도 그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전공계열 간의 등록금 차등화는 교육원가 및 수익자 부담의 논리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의학계열의 등록금은 실험실습비의 반영 등으로 다른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설립주체에 따른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의 등록금 격차는 여전히하다는 것이다. 2007년 사립대

표 1. 지역별 등록금 인상 현황

(단위: 천 원, %)

수도권		광역권		지방권		평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7,272	7.2	6,401	6.0	6,617	6.3	6,893	6.6

*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2007년 등록금 집계결과보고서.

표 2. 계열별 등록금 인상 현황

(단위: 천 원, %)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평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5,999	6.7	7,024	6.6	7,836	7.0	7,095	6.6	9,382	7.1	6,893	6.6

*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2007년 등록금 집계결과보고서.

표 3. 최근 3년 간 등록금 인상률 현황

(단위: 천 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등록금	차이	인상률	등록금	차이	인상률	등록금	차이	인상률
국·공립	3,115	100	7.3	3,427	100	10.0	3,775	100	10.2
사립	6,068	195	5.1	6,465	189	6.5	6,893	183	6.6

학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에 비해 1.83배나 크다. 물론 최근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대학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된 결과로 그 격차는 1.95배에서 1.83배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정책이 설립자 및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의 경우, 설립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족재원을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므로 저가의 등록금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사립대학은 설립주체인 학교법인의 재정 지원이 미약한 상태로 대학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학생등록금에 의존함으로써 수익자인 학생에게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와 학생 간의 등록금 인상 갈등은 절대 금액 측면에서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사립대학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4. 물가상승률 대비 등록금 인상률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자주 비교가 된다. 그 이유는 등록금 인상률이 다른 재화에 대한 비용부담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 간 물가상승률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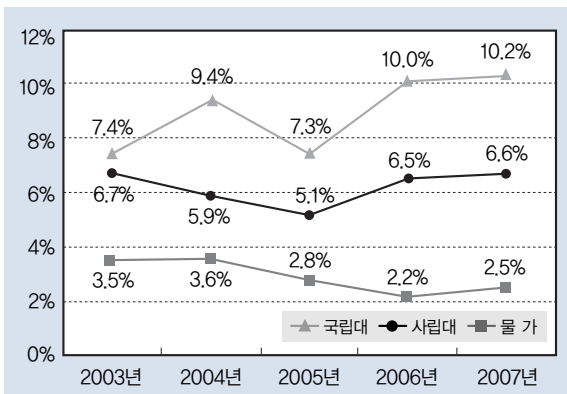


그림 1. 물가상승률 대비 등록금 인상률 현황

등록금 인상률을 보게 되면 매년 물가상승률 2.5~3.5%보다 훨씬 높은 5.1~6.7%의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대학등록금 인상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Ⅲ.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

1. 양적성장 중심의 교육 투자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197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하여 학교 수는 1971년 136개교에서 2006년 327개교로 2.4배 늘어났고, 학생 수는 179,897명에서 2,706,430명으로 15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교육의 질적 지표 중 하나인 교원 수는 동일기간 동안 9,416명에서 63,716명이 증가하여 7배 증가에 그쳐 학생 수 증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교육은 교육수요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교육시설의 개선, 우수한 교원 확보, 기업요구에 부응하는 능동적 교육 서비스 제공 등 교육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나, 차후로 미뤄져 왔다. 이렇게 과거로부터 미뤄져 온 교육투자까지 확대해야 했기 때문에 최근 교육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재정수입재원의 다각화 미흡

사립대학은 교육 및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제주체로부터 교육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주요 경제주체는 학생, 국가, 사회, 학교법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수입항목으로는 학생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국가재정 지원에 의한 국고보조금, 사회로부터 받는 기부

표 4.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재정수입 현황

(단위 : 억 원, %)

구분	등록금	전입금	기부금	국고 보조금	교육 부대수입	교육 외 수입	자산 및 부채수입	전기 이월자금	총계
금액(%)	84,086(68.2)	9,822(8.0)	4,452(3.6)	1,610(1.3)	3,622(2.9)	4,936(4.0)	7,744(6.3)	6,972(5.7)	123,244(100)

*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2006년 사립대학 결산보고서.

전입금 수입 : 학교법인전입금(4.5%: 경상비전입금(2.3%)+법정부담전입금(0.8%)+자산전입금(1.4%)), 부속병원전입금(2.6%), 특별회계전입금(0.3%), 교내전입금(0.1%), 산학협력단전입금(0.5%), 학교기업전입금(0.0%)

표 5. 하버드대학의 재정수입 현황

(단위 : \$, million)

구분	학생납입금	연구지원금			기부금	투자수입	기타 수입	합계
		정부지원	각종 재단	기타				
금액(%)	616.1(21)	513.6(17)	75.2(3)	37.6(1)	201.9(7)	1,100(36)	453.9(15)	2,999.6(100)

* 자료 : 하버드대학 financial report 2005~2006.

금 그리고 학교법인전입금이 있다. 그러나 2006년 사립 대학 재정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총 자금수입 12조 3,244 억 원 중 등록금수입이 68.2%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재원의 특정 항목 편중화가 심한 상태이다.

반면, 하버드 대학 재정수입은 학생납입금, 연구지원금, 기부금, 투자수입,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구성 비율은 21%, 21%, 7%, 36%, 15%로 학생납입금, 연구지원금, 투자수입이 모두 20%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특정 수입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다. 특히, 등록금에 대한 의존율이 21%로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 68.2%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하버드 대학에서 투자수입이 36%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학교법인전입금인데, 2006년 4.5%에 불과하여 향후 대학재정수입의 일부재원 편중 완화를 위하여 대학재정기여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학교법인의 적극적인 역할모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입재원 중에서 기부금은 개인, 기업체 및 단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자금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4년 10% 수준에서 2006년 4%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기부금은 상위권 일부 대학으로 집중되고 있어 중하위권 대학의 기부금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대학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을 나타내며, 정부는 각종 정책 사업이나 연구비로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49%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비회계는 4.4%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04년 이후 연구비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산학협력단 회계로 이관한 결과 교비회계의 주요 수입재원을 다른 회계로 이관함에 따라 교비회계 재정수입은 더욱 감소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립대학 재정수입구조는 등록금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태이며,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수입도 점차 줄어들어 교비회계의 재정수입은 더욱 감소하고 있고 등록금에 대한 의존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재원 확보를 위해 보다 더 높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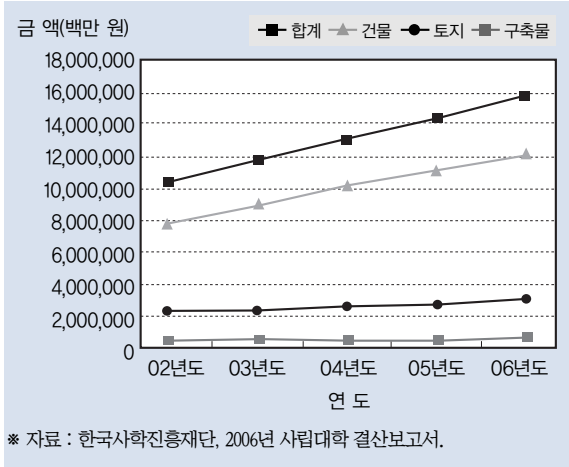
3. 교육시설 투자 확대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BK21, 누리사업 등 각종 정부 예산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교원 확보율, 교육시설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에만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대학은 2002년도 이후 토지, 건물, 구축물에 대한 투자금액을 매년 10% 이상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교육시설 투자 증가율은 등록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교육시설에 대한 재정 투자는 학교법인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학생

표 6. 사립대학 유형자산 증가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유형자산	증가율
02년	15,818,404	-
03년	14,337,247	14%
04년	13,178,233	12%
05년	11,800,832	9%
06년	10,390,817	10%

*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2006년 사립대학 결산보고서.



*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2006년 사립대학 결산보고서.

그림 2. 사립대학의 유형별 자산 증가 현황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직원·교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했고 무엇보다도 설립주체인 학교법인이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학교의 교비회계에서 교육시설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4. 교원보수

정부는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원 확보율을 단계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06년 사립대

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62.5%인데 2009년까지 연구 중심대학은 교원 확보율을 최소한 65%까지 높이도록 지도하고 있다. 대학은 교원 수의 증가를 통한 교육의 질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교원은 대학의 연구 및 교육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주체로 최근 대학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수교원 확보가 대학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교원의 인건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교원 보수가 2005년 333억 원에서 2006년 365억 원으로 증가하여 9.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등록금 인상률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원 수 및 보수의 증가는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IV. 등록금 인상의 완화방안

1. 재정운용의 효율성

사립대학은 등록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법인전입금 등의 수입재원을 얼마나 적정 배분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상당 부분 자금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대학등록금의 인상을 논하기에 앞서 대학 스스로가 자원의 적정 배분, 대학운영의 효율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최소한의 교육 투자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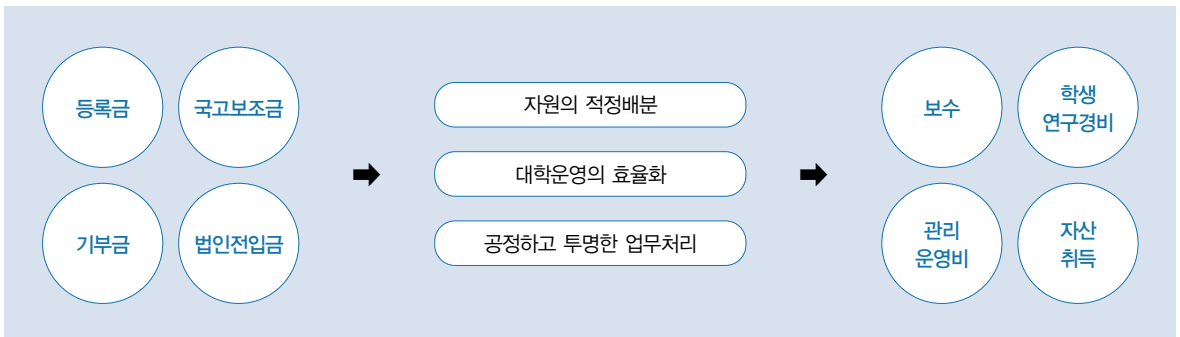


그림 3. 사립대학 재정수입 및 지출 흐름도

2. 학교법인의 재정기여도 제고

대학재정기여도란 학교법인이 대학재정수입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학의 자금수입 총액에서 학교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학교법인의 대학재정기여도는 매우 저조한 형편으로 2006년 결산 기준으로 대학의 자금수입 총액의 4.5%에 불과한 실정으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활용한 대학재정기여도 제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개발하여 대학재정기여도를 제고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를 들 수 있다. 건국대학교는 스타시티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대학재정기여도가 2001년 1.4%에서 2006년 12.4%로 높아져 대학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3. 기부금 확대노력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로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발전은 각 개별 학교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으므로 국가 및 사회가 대학발전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가 되고 있다. 특히, 각종 기부문화 캠페인이 있어 왔지만, 대학에 대한 기부문화 활성화 캠페인은 없었다. 물론 개별 학교가 기부금 확대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부금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혜자지정기부금제도를 도입하고, 대학 기부금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

대한 기부금 증가는 대학 재정의 새로운 수입재원으로 등록금 인상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장학금 및 학비감면 제도의 활성화

장학금 및 학비감면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직접 주는 것으로 등록금 인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장학금이나 학비감면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006년 장학금 및 학비감면액은 1조3천억 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장학금은 2,678억 원이고 등록금수입은 8조1천 억으로 장학금 수혜비율은 3.3%이다. 이는 2002년도 2.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장학금 및 학비감면의 확대는 학생의 등록금 실질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는말

이상에서 우리는 대학등록금이 대학의 주요 수입재원이며, 등록금의 본질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금의 범위 및 내용과 관련한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았다. 또한, 우리 대학이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투자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과거로부터의 재정적인 한계로 지연된 교육의 질적 투자를 보충하고 미래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시설

표 7. 사립대학의 장학금 및 학비감면 추세

(단위 : 천 원)

구 분	장학금 및 학비감면			등록금수입 (수강료 제외)	수혜율		
	장학금	학비감면	소계		장학금	학비감면	소계
2006	267,865,083	1,040,511,105	1,308,376,188	8,101,822,584	3.3%	12.8%	16.1%
2005	248,977,021	942,317,415	1,191,294,436	7,488,269,670	3.3%	12.6%	15.9%
2004	240,840,206	839,678,228	1,080,518,434	7,089,887,102	3.4%	11.8%	15.2%
2003	196,012,877	754,183,761	950,196,638	6,654,131,593	2.9%	11.3%	14.3%
2002	163,319,909	657,757,381	821,077,290	6,098,270,450	2.7%	10.8%	13.5%

*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2006년도 사립대학 결산집계보고서(교비회계 기준).

투자,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인건비 증가 등은 대학등록금 인상의 불가피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상요인 전부를 학생등록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재원 확보를 등록금에만 의존할 경우, 교육여건 개선이나 대학특성화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은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교육재원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각종 수입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대학은 신규재원의 발굴을 통해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종 장학금 및 학비감면제도를 체계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운영자 및 학생들은 공동운명체로서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에 서로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등록금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양쪽 모두는 대학발전을 위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발전해야만 하는 동반자관계라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원마련이 필요하며, 자원마련계획에 따라 매년 등록금 인상률을 사전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계획 및 실천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학생 간의 신뢰이다. 그러나 문제는 신뢰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뢰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함께 같은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다. 최근 대학구성원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되었는데, 그것은 세종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하는 '대학재정 바로알기' 설명회로 '07년 11월 세종대 총장, 교직원, 학생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사립대학의 특성 및 재정 현황, 외국대학 재정수입구조 그리고 세종대의 현재 재무성과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었다. 향후에도 대학과 학생이 대학재정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서 대학발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등록금 인상문제도 원활하게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학재정 확보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대학이 스스로 새로운 재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신규재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기부금 활성화제도 등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사립대학의 열악한 재정상태는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회피한 결과이므로 각 개별 대학만의 문제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대학재정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직접적인 재정 지원에 적극적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 결과로 사립대학의 재정수입재원이 다양해질 때 대학교육을 위한 재정 부담이 학생에게만 전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어 학생등록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광영우. 1996. "대학등록금의 합리적 책정", 대학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워크숍 제 96호-1호.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고등교육기관 교육통계조사.
- 교육인적자원부. 1987 "대학등록금지율화 세부추진계획".
- 김기평. 2003. "대학등록금정책의 기본철학과 책정과정의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16권 제4호.
- 김남연. 1999. "교육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대학등록금 책정모형에 관한 연구".
-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http://infor.sahak.or.kr/>)
- 하버드대학 financial report 2005-2006.
- 한국사학진흥재단. 2006년 사립대학 결산집계보고서.
- 한국사학진흥재단. 2007년 등록금 집계보고서.
- 한국사학진흥재단. 2007. "사립대학 특성 및 재정 현황".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1. 교육재정경제학 백과사전. 하우동설.

필·자·약·력

길용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단국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중이다. '95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입사하여 사학진흥기금 융자사업, 에듀21 민자사업, 대학재정 바로 알리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현재는 동 재단의 사업전략팀장으로 재직 중이며 국제부동산학회 운영이사이다. 주요 저서로 '사립대학 특성 및 재정현황', '외국대학 재정현황' 등이 있으며, 에듀21 실행방안 연구, 고등교육기관의 재정분석연구 등에 참여하였다.